
작가인터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KAIST에서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어요. 인공지능 융합 기술 관련하여 산업체, 스타트업, 연구실에 대한 자문이나 강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예컨대, 자율주행, 생성형 AI와 같은 이머징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이러한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 법률적 이슈 - 자율주행 차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로스쿨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생기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떤 법률이 필요하게 될까 하는 상상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 사회가 도래할 때 인공지능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떨지에 관한 것들이죠. 반려동물에게도 양육권 분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인공지능은 더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상의 산물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격과 의무, 권리를 넘어 人(인) 개념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셨는데요.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창작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공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삼성전자에 엔지니어로 취업한 당시에는 일 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권을 두고 특허 전쟁을 걸어온 시

기였습니다. 특히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산업 기술과 법률 분쟁 사이를 오가며 젊음을 바쳤죠. 그때 법률에 눈을 뜨게 되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이후 KAIST에서 교원으로 근무할 때 존경하는 리더십 교수님들의 지원으로 KAIST가 지향하는 과업 활동들을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말아서 수행했어요. 과학기술과 법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계기였고, 그 경험이 이번 책에도 반영되었죠.

공학자이자 법률가, 인문학도로 살아오셨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법률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은 과학 기술자의 인사이트가 미디어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이 일상에 깊게 침투하면서 보편성을 갖게 된 덕분이죠. 교양의 지평이 많이 넓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초래할 법률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법률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법 분야 종사자들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을 수습하느라, 입법 분야 종사자들은 현실의 수많은 이슈를 해결하느라 바쁘죠. 법률가들은 마지막에 굶은 종기를 짜내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률이라는 렌즈의 시야각을 너무 좁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 스마트폰 기술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태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시대이고,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기술로 말미암아 그간의 혁신을 훌쩍 뛰어넘는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률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기반한 법률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돈이 찾아 올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과 발명을 대체하는 문제도 다루셨어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을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없다”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요. 첫째는 소위 ‘가성비’입니다. 시점에 따라 모방의 가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변합니다. 아마 어느 시점에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가성비를 만족시킬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이유로 가성비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즉,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기준의 성능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인간이 해야겠죠. 나아가, 입법, 사법, 행정 등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자는 인간이 양보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한편, ‘인간만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역 기준의 잣대를 벗어난 관점 말입니다. 예컨대, 롤 모델은 어떤가요? 멘토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롤 모델로서 멘토링은 하지 못할 겁니다. 소비자는 어떤가요? 전자부품의 소비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고기와 야채, 음악과 영화의 소비자는 못 될 겁니다.

전자인간이 일상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전자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정복당하지 않아야겠죠. 사회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의사결정자의 역할과 인공 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을 잃어서는 안 돼요. 둘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인간의 자존심이 짓밟히면 공존을 거부하게 될 테니까요.

20세기 사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대전, 이념주의, 정보화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간소외’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외를 뛰어넘어서 ‘존엄적 가치’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도전을 맞닥뜨릴 거예요. 문명의 주체로서 그 옆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책에서 예측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소정의 법인격을 부여하더라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끄는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이나 창작 모두 인간 명의로 하도록 해야 하고, 아마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특히 창작은 인간의 고차원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성을 빼앗기게 되면 상실감이 다른 분야보다 클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명의 뒤에 서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전자인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경험이나 뉴스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는 꽤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전자인간에 대한 논의나 뉴스는 별로 없어요. 제가 다루는 ‘전자인간’이란 인간처럼 동작하는 AI 휴머노이드라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니까요. 이 책의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에게 기본권 일부를 인정한다는 뉴스가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에이전트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인정받는다면, 책임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압수, 수색, 체포,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 등이죠.

전자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느껴집니다. 작가님이 전자인간에 대해 상상했던 가장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막연한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자 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AI 임신 로봇 상용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막연한 상상이

자 낚시하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책에서 제가 나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재미있는 상상이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행복한 기억과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 가정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인간이 적절히 업그레이드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자인간을 통해 소중한 무형의 것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는 자신의 유지대로 재원이 지속성 있게 전자인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인간 명의로 재원을 할당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인간, 소위 로봇이나 AI 를 다룬 작품들은 대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작가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는 이유는 잘못된 미래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디스토피아적 효과를 강조하다 보면 설정이 과도해지거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혼란이나 일시적인 후퇴가 있을지언정, 끊임없는 회복 탄력성을 보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디스토피아적이라는 건 낮은 확률의 가정이라고 봐요.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예측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과 인문, 법과 서사를 한데 모아 통합해 내는 이번 작품을 쓰기까지 영감을 받은 책이나 콘텐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수많은 책과 콘텐츠라는 축적된 거인의 어깨 위에서 펜을 들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독창성을 위해 다른 콘텐츠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관련 뉴스들이 영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팩트에 충실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들은 책 끝에 수록했습니다. 추가로 학습하고 싶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이 문명사회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다가올 산업, 사회, 법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호기심 많고, 뜻있는 분들과 인연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속작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책은 시사 교양서 개념으로 출발했다가, 독자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 이야기편을 추가했는데요. 다음에는 이후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자계산기가 일상화된 지 오래되어도 수학 공부가 필요하고, 챗GPT가 번역을 잘해줘도 언어 학습은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콘텐츠가 발에 채여도, LLM이 아무리 대답을 잘 해줘도, 책을 읽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전전두엽과 측두엽이 강화되면 옥시토신, 도파민, 엔도르핀, 노르아드레날린 분비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상회로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즉, 사고력과 정신력이 강해지고, 상승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좋은 건 해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제 글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작가홈페이지